

<국어 기초적 접근법 (1)>

오늘의 주제 : “실시간 + 문항 간 순서 = 효율적인 동선”

학생들이 ‘국어 공부’에 관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국어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하나요?!’입니다!
그래서 이 칼럼에서 국어 기출 분석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국어 7 등급에서 1 등급으로 가면서 바꾸었던 몇 가지에 대한 글입니다
실제로 저는 **국어 7 등급에서 1 등급(백분위 99)**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수학과 7 등급에서 1 등급(99), 영어도 6 등급에서 1 등급을 넘어 100 점까지 올렸습니다..!

거의 밑바닥부터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서 정말 시행착오라는 건 뭐든 다 겪어보았던 것 같아요
아까운 시간도 날려보고, 교재 사느라 돈도 날려보고,,
게다가 수능을 다시 보느라 들었던 돈까지 생각하면...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도
빠르게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극강의 효율 추구러입니다! 제 MBTI 는 ENTJ 이고,,
이런 효율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선의 효율’이에요!

여러분은 왜, 지문을 먼저 쭉 읽고, 문제에 가서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시나요?!
아마도, 선지의 근거가 기억이 나지 않았거나, 지문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일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ㄱ,ㄴ과 a~c 혹은 [A], [B]처럼 지문에서 대놓고 ‘나 이거 물어볼 거야!’
라고 쓰여 있는 것들은 못 보고 문제에 갔다가,
‘ㄱ,ㄴ이 뭐였지?!’하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 ㄱ,ㄴ 부분을 찾아 다시 읽는 데에 시간을
허비하시나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바로 ‘실시간’과 ‘문항 간 순서’입니다!

위 두 가지 사항은 제 국어 등급을 바꾸고 국어 시간을
드라마틱하게 줄이는 데에 일조한 일등공신들이에요!

화작, 언매, 독서, 문학 전 영역에 걸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분량 상,,
화작과 독서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니 언매러들도 주목해주세요!

<예시 1 : 화법과 작문>

이건 제가 현역으로 보았던 2019 학년도 수능의 화법과 작문 문제입니다!

<p>14~7기 (가)는 학교 신문에 실을 기사문의 초고이고, (나)는 (가)를 수정하기 위한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p> <p>(가)</p> <p>[표제] 성공 마라톤을 위해 모두가 함께해</p> <p>[전문] 지난 10일 4일 우리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은 K 군을 돕기 위해 응원 메시지를 달고 사색동행 마라톤 행사를 함께했다. [본문] 선생님 32명과 학생 174명이 함께 달린 이 행사는 K 군 (2학년)의 재유를 기원하기 위해 학생회가 주최하였다. 한 달 전 교실에서 쓰러져 입원한 K 군의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들이 병원을 모금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의미가 컸다. 또한 행사 참가자들은 모두 5천 원씩의 성금을 내고 학교 인근 △△공원 일대 4km 구간을 완주했다.</p> <p>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소 마라톤을 즐겼던 K 군을 생각하며 응원 메시지를 가슴에 달고 뛰었다. △△공원을 찾은 많은 시민들은 이 모습을 보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힘내라며 응원을 보냈다. 이날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았다. 마라톤이 끝난 뒤,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여 성금을 기탁한 시민도 있었다. K 군의 담임선생님은 "친구를 돕기 위해 학생회가 앞장선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다."라고 말했다.</p>	<p>학생 3: 그 부분은 일부러 그렇게 쓴 건데, 이상해? 학생 2: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궁금해. 학생 3: 응원 메시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제안한 거라 학생의 역할을 강조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학생 2: 실제 사실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다뤄야지.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 정보를 누락하면 안 돼. 학생 1: 맞아.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야지. 학생 3: 그러게. 내가 잘못 생각했네. 수정해 올게. 학생 1: @그인데 이번 행사는 그 의미가 중요한 만큼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을 담기로 하지 않았어? 학생 3: 아, 맞아. 지난 회의에서 그러자고 했는데 잊었네. 거기 에 학생 인터뷰를 넣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안 넣고 학생 1: 응, 학생회장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말한 인터뷰 있잖아. 그걸 넣으면 될 것 같아. 학생 2: 행사 이후 결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면 좋겠어. 학생 3: 고이워. 지금까지 나온 의견 모두 반영해서 써 볼게. 학생 1: 그런데 글의 분량도 생각해야 할 것 같아. 학생 2: @기사문이 실릴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니와 추가로 작성할 내용은 많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학생 1: 지금 다시 읽어 보니 본문에 불필요하게 중복된 내용의 문장이 있어. 그걸 삭제하면 글의 분량이 줄어들 것 같아. 학생 3: 지면의 크기도 염두에 두면서 기사를 써야 하는구나. 알겠어. 그렇게 할게. 학생 2: 아, 그리고 성금을 5천 원씩 낸 건 학생이었고, 선생님은 만 원씩 내었어. 사실에 맞게 본문을 수정해 줘. 학생 3: 그렇게. 처음 써 본 기사문이라 부족한 게 많아. 학생 1, 2: 괜찮아. 기사 쓰느라 고생했어.</p>	<p>5.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가)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로 작성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① 학생회장은 "행사 홍보가 힘들었지만 즐거운 경험이었다."라고 밝혔다. 선생님과 학생 누구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 달린 의미 있는 행사였다. ② 학생회장은 "준비 기간이 짧아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무사히 마무리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행사에서 모인 성금은 다음 날 학생회장이 대표로 K 군 가족에게 전달했다. ③ 학생회장이 계획하고 준비한 이번 행사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한 인상적인 행사였다. 행사 이후 K 군 가족은 성금을 전달받고, 학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④ 학생회장은 "장소 섭외가 힘들었지만 뜻 깊은 경험이었다."라고 밝혔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치고, 모금된 성금은 K 군 가족에게 전달했다. ⑤ 학생회장은 "어려운 친구를 생각하며 기쁘게 완주했다."라고 밝혔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달려서 뜻을 모을 수 있었던 행사였으며, 학생회에서 성금을 K 군 가족에게 전달했다.</p>
<p>(나)</p> <p>학생 1: 사색동행 마라톤 행사를 다룬 기사문을 검토할게. 학생 2: 이 기사문은 내가 작성한 거지? 학생 3: 응, 초고라서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아. 학생 1: 우선 표제와 전문에 대해 논의하자. 표제를 수정하고, 전문은 유화원칙 중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 같아. 학생 3: ㉠ 내 말을 들으니 전문은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할지 알겠는데, 표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말해 줄래? 학생 1: 표제는 중심 소재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표제에는 어떤 행사가 열렸는지 드러나지 않았어. 학생 3: 그러게. 표제에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학생 1: 그리고 행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써 보는 건 어때? 학생 2: 그러면 한눈에 기사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잖아. 대신에 참가 인원수를 적자. 학생 1: ㉡ 내 말대로 하면 행사 규모에 초점이 맞춰져서 행사의 의미를 드러내려는 기사문의 의도가 살지 않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학생 3: 두 의견을 들어 보니, 내 의견대로 중심 소재를 담고 화합이라는 행사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표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학생 1, 2: 응, 그래. 학생 1: 다음으로 본문에 대해 논의하자. 학생 3: ㉢ 선생님과 학생이 한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한 모습이 드러나게 쓰려 했는데, 어때? 학생 2: 응, 그 점은 잘 드러나게 쓴 것 같아. 그런데 선생님들도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뛰셨는데 본문에 그 내용을 빠뜨린 것 같아. 수정이 필요해.</p>	<p>4. '학생 3'이 (나)를 참고하여 (가)를 고쳐 쓰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 표제 수정하기 → "작은 문방울을 하나 되어 희망 만든 사색동행 마라톤"으로 수정해야겠군. ㉠</p> <p>○ 전문 수정하기 → "지난 10일 4일 △△공원 일대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K 군을 돕기 위해 응원 메시지를 달고 사색동행 마라톤 행사를 함께했다."로 고쳐야겠군. ... ㉡</p> <p>○ 본문 수정하기 → 첫째 문단 마지막 문장을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소 마라톤을 즐겼던 K 군을 생각하며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뛰었다."로 고쳐야겠군. ㉢ → 둘째 문단 첫 문장을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소 마라톤을 즐겼던 K 군을 생각하며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뛰었다."로 고쳐야겠군. ㉣ → 둘째 문단에서 "이날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았다."를 삭제해야겠군. ㉤</p> <p>① ㉠ ② ㉡ ③ ㉢ ④ ㉣ ⑤ ㉤</p>	<p>6.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① ㉠: 상대의 제안 중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상대에게 요청하는 발화이다. ② ㉡: 상대의 제안은 기사문에서 강조하려는 바와 달라지게 한다고 판단하여 반대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발화이다. ③ ㉢: 화합의 모습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본문에 나타나는데에 대한 상대의 생각을 확인하는 발화이다. ④ ㉣: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작성에 대해 논의했던 사람이 무엇 인지를 상대에게 환기하는 발화이다. ⑤ ㉤: 글의 분량을 언급한 상대의 의견에 대해 지면의 크기들 이유로 들어 상반된 의견을 드러내는 발화이다.</p> <p>7. [A], [B]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① [A]에서 '학생 3'은 '학생 1'과 '학생 2'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측에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②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을 비판하고 있고, '학생 1'의 의견은 지지하고 있다. ③ [A]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의견을,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④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1'이 '학생 2'의 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⑤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2'가 '학생 1'이 제시한 의견을 점검하고 있다.</p>

천천히 잘 보시면, (가)와 (나)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가)는 작문, (나)는 화법이네요!

그리고 4 번과 5 번 문제의 발문을 보시면 (가)와 (나) 지문을 모두 읽어야 풀 수 있네요!

그리고 6 번과 7 번 문제는 (나) 지문만 독해하면서 '실시간'으로 풀면 되네요!

여기서 잠깐! '실시간'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ㄱ~ㅁ, a~c, [A],[B]처럼 물어보는 곳을 독해할 때, 해당 부분 혹은 해당 부분이 속한 문단까지만 읽고! 바로 문제를 풀러 가는 것을 말해요!

다시 돌아와서, 만약 예전에 저라면, 그냥 (가),(나) 지문을 쪽 읽고, 4 번 문항부터 쪽 풀었을 거예요! 네,,, 2019 학년도 수능이 헬이었던 게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4 번 문항부터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저것 확인할 것도 많고,, 더 심각한 건! 이게 바로 4 번 문제라는 겁니다...

뒤에 남겨진 문항이 많다는 부담감, 이제 4 번 문제인데 막혔다는 그 절망감..
잠시 Ptsd 가 왔지만...!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면 어땠을까요!?

순서를 살짝 바꾸어서 (나)지문을 먼저 읽으면서, 6 번, 7 번 문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걸로요!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나) 독해

(ㄱ)부분 독해 끝-> 6 번 ㄱ 해당 1 번 선지 확인

(ㄴ)부분 독해 끝 -> 6 번 ㄴ 해당 2 번 선지 확인

[A] 부분 독해 끝 -> 7 번 [A] 관련 선지 1,3,4,5 번 확인

(ㄷ)부분 독해 끝 -> 6 번 ㄷ 해당 3 번 선지 확인

[B]부분 독해 끝 -> 7 번 [B] 관련 선지 2,3,4,5 번 확인 -> 7 번 문제 끝!

(ㄹ)부분 독해 끝 -> 6 번 ㄹ 해당 4 번 선지 확인

(ㅁ) 부분 독해 끝 -> 6 번 ㅁ 해당 5 번 선지 확인 -> 6 번 문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다구요!? 글로 풀어쓰니까 그렇지,,,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몇 번만 연습해봐도 바로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 지문 독해도 끝났고, 6 번, 7 번 문제도 끝났기 때문에 빠르게 (가)지문을 읽고 4,5 번을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게 되었어요! 원래라면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하나 봐야했던 6 번, 7 번 문제도 끝났으니 시간도 훨씬 단축된 거예요!(화작 칼럼이 아니기 때문에, 지문을 읽어갈 때 어느 곳을 체크해야 하는지, 핵심은 무엇인지 등등을 여기에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지문을 읽어가면서 중간 중간 풀 수 있는 문제는 꼭 풀자!

그걸 우린 '실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맞춰 우린 '문항 간 순서'를 짜볼 수 있어요

지문을 읽기 전에, '실시간'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동선'을 그려보세요

이후에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예시 2 : 독서>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드문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된 기술,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이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가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告示),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를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이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조례는 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된다. 제정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인 지방 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조례도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조례는 입법이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26. 밑줄의 내용을 일치하는 것은?

- 1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제정 주체가 동일하다.
2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개별적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3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위임에 근거한다.
4 행정 규제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은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다.
5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 규제 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2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그 위임명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2 그 위임명령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 그 위임명령이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그 위임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 기관에 맡겼기 때문이다.
5 그 위임명령이 구체적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8.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2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3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4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제정 주체에 의해 제정된다.
5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29.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갑은 새로 개업한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인근 자연 공원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한다. 현수막 설치에 관한 행정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 시청에 문의하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문의하신 규격의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설치 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법률 제16조(광고물 실명제)에 의하면, 신고 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 ㉠ 시청 의회에서 제정한 법령에 따르셔야 합니다.

- 1 ㉠의 제3조의 내용에서 ㉢의 제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군.
2 ㉢의 제5조는 ㉡의 제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았겠군.
3 ㉢은 ㉡와 달리 입법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칠겠군.
4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겠군.
5 ㉡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겠군.

30. 문맥상 ㉠~㉣과 바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1 a: 나타내기
2 b: 드러내어
3 c: 헤아릴
4 d: 마주하기
5 e: 달라진다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독서 책을 아무렇게나 펴서 나온 지문이에요!

2021 학년도 9 월 모의고사 '행정규제' 지문이네요!! 우리 한 번, '실시간' 판별을 해봅시다!

자세히 보면, 27 번 문항에 ㄱ이 2 문단 끝에 있네요!!

그럼 27 번은 우리가 2 문단 독해 후에 바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28 번 문항은 3 문단의 '행정규칙'에 관해 묻고 있네요! 그럼 28 번은 3 문단 독해 후에 바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동선'을 마련했어요!

위 아래로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지문 독해 시작

2 문단 끝까지 독해 -> 27 번 문제 끝내기

3 문단 끝까지 독해 -> 28 번 문제 끝내기

4 문단 끝까지 독해 -> 남은 26 번, 29 번, 30 번 문항 끝내기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분명 궁금한 게 생기셨을 거예요!

1.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만약, 이렇게 실시간과 문항 간 순서를 짜놓지 않는다면, 분명 여러분은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지문 전체를 쭉 읽고, 26 번 풀고, 27 번에서 다시 ㄱ부분 읽고, 27 번 풀고, 28 번에서 다시 3 문단 전체 눈으로 훑고, 28 번 풀고 29, 30 번 풀기 '다시 ㄱ부분 읽고', '다시 3 문단 전체 눈으로 훑고'가 왜 필요할까요!?

물론, 지문을 제대로 독해해서 다시 가지 않을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항을 풀어보자는 겁니다!!

2. 지문 전체에는 흐름이 있다는데... 중간에 문제 풀러 가면 흐름이 깨지지 않나...?!

지문 전체에는 분명 흐름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 수능과 모의고사는 오히려 주제가 갑작스럽게 바뀌기도 하고, '흐름'에 신경쓰다가 '정보량'과 '효율성'을 놓치기 쉽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흐름'이라는 게 뭘까요..?! 유기적 독해를 흐름이라고 한다면, 흐름보단 '연결'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고,, '연결'은 문제를 중간에 풀면 끊어지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흐름이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흐름은 끊기지 않아요!
문제를 풀고 금방 돌아오면 되니까요 걱정마세요!!

<독서 영역 실시간 주의점>

하지만 독서 영역에서 '실시간'을 따질 때에는 주의할 점도 분명 있습니다

1. 반드시, 해당 부분의 해당 문단까지 다 읽고 문제를 풀러 가야 합니다
 2. 만약, ㄱ, ㄴ이 지문 앞 부분에 나와 있다면 해당 문단을 다 읽고도 안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더 뒤쪽까지 독해하고 가야 합니다!
 3. [A] 부분이 실시간이라 갔는데 <보기> 문제다?!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세요!
빠르게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4. 만약, 독서 마지막 문단에 '실시간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문단까지 읽고 해당 문항을 먼저 푼다면 그게 바로 실시간이 되는 거예요!
-

문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설을 읽어가면서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분량 상 예시를 들지는 않겠지만,,, ㄱ~ㄴ, [A], [B] 등 지문 속에 체크되어 있는 '실시간 표시'들을 통해 내가 전체적으로 이 소설 4 문항을 어떻게 풀어가겠다! 라는 '문항 간 순서'를 세워보세요!

다시 말해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세워보세요!

언매도 빠지면 서운하시겠죠,,, 37 번과 38 번 문항이 나오는 **장지문 문법 지문**을 자세히 잘 살펴보세요! **분명 반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절반 읽고 37 번, 절반 읽고 38 번. 감이 오시죠?! 매체에서도 ㄱ~ㄴ이 나옵니다! 그것도 잘 살펴보세요!!

결론적으로!

만약 본인이 지문을 그냥 읽고 문제를 그냥 순서대로 풀고 있다면,
오늘부터는 '실시간' 문제를 파악해서 '문항 간 순서'를 매기고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찾아보세요!

효율을 극대화하고 정답률을 높이고 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는
나만의 '효율적 동선'을 만들어보세요!

국어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적절한 전략과 방법론, 행동영역을 구사하며 푸는 시험입니다

밋(mit)

연세대학교 재학중
국어, 영어 과외 40명 이상
대치, 반포 국어 학원 모의고사 전담 조교
강대 k 모의고사 검토진
국어 독학서 제작 중.....